

광주경총, 김광석 교수 초청 금요조찬포럼

# “중동전쟁 후 경제, 코로나 때처럼 구조적 변화 불가피”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변화시킨 것처럼 중동전쟁 이후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는 지난 1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1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중동전쟁 이후 2026년 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동산 석유의존도가 높아 중동전쟁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중동전쟁의 파급 효과와 세계 경제 흐름,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I) 등을 중심으로 향후 경제변화를 진단했다.

특히 중동전쟁이 4월을 넘어 장기화될 경우 ‘4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만큼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중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은 중동전쟁의 충격이 세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회식 문화와 소비 방식

## 호르무즈 원유 공급 20%...석유 의존 높은 한국 직격탄 공급 부족 현실화 시 나프타 기반 산업 생산 차질 우려 데이터센터 확대 등 전쟁 이후 DX·AI 구조 전환 강조

이 변화했다 중동전쟁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국제 유가와 공급망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미 석유 정제시설 두 곳이 파괴됐고, 정제시설 발주와 계약에 6개월, 완공까지 3년 이상이 걸리며 복구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 유가가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4차 오일쇼크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오일쇼크의 핵심은 기름값 상승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라며 “플라스틱, 비닐, 의류, 타이어, 페인트 등 대부분의 제품이 나프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과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국제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석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나프타 대신 사탕수수 원료를 활용하는 용기를 만드는 등 구조적 변화로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든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안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동전쟁 이후 핵심 경쟁력으로 인공 지능(AI) 기반 산업 구조 전환을 제시했

다. 그는 “AI 고속도로는 결국 데이터센터 구축을 의미한다”며 “전 세계가 AI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은 연산력, 즉 컴퓨팅 파워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과 에너지 산업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 확보가 향후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I)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이미 일상이 됐다”며 “앞으로는 AI가 소비와 산업 구조까지 바꾸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뿐”이라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중동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변화를 읽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지난 1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1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김광석 교수가 ‘중동전쟁 이후 2026년 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전남TP, 레전드50+ 기업 성장엔진 돌린다

지원사업 설명회...AI·R&D·수출 패키지 제공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전남지역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참여기업 40여개사, 60여명이 참석했다.

레전드 50+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해 선정된 1840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100억원), 수출(100억원), 제조 혁신(100억원), 사업화(180억원), 인력(15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495억원을 지원한다. 또 정책자금, 창업·성장, R&D, 보증 분야에는 선정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또는 가점 부여, 지원한도 상향, 보증조건 우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이번 자리에서는 참여기업 AI 역량강화 교육 계획,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지자체 연계사업 및 R&D 지원사업, 탄소중립 제조혁신,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등 후속 지원 사업도 함께 소개됐고 동시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설명을 통해 지역기업의 중앙 R&D 사업 참여와 이해를 돕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밖에도 설명회가 마무리된 후 1대1 상담회를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지원의 장이 마련됐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설명회와 상담회를 통해 레전드50+참여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남 레전드50+참여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공급망 충격 대응

기후부 ‘시험계획서’ 제출 허용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공급망 대응에 나섰다.

기후부내지환경부는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수급 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공급망 병목으로 기업들이 기존 공급처를 대체하거나 직접 수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유효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긴급 수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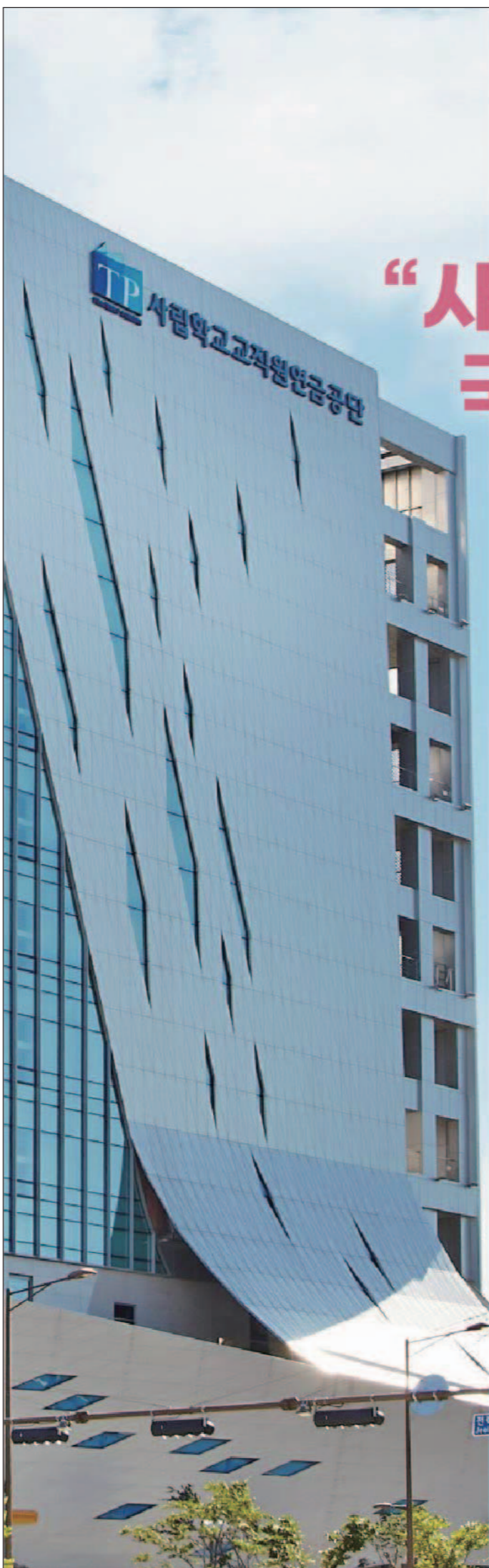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요청과

협의를 거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돼 이달 내 시행될 예정이다. 전쟁이나 국제분쟁, 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화학물질 수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도료·플라스틱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원료 수급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확보하고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사립학교교직원과 국민이 함께 하는 더 나은 내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안정적인 연금제도의 운영과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자금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의 임용부터 은퇴 이후 까지 항상 함께하는 연금·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저희 사학연금은 국가 복지의 한 축으로써 또한 국민 속의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P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